

해남 먹거리 선순환 지역경제 활력

농식품바우처 사업 선정...사업비 13억원 확보

취약계층 영양 불균형 해소·농가 소득안정 기대

해남군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2022년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공모에 전남도에서 유일하게 2년 연속 선정돼 국비 등 사업비 13억원을 확보했다. 특히 해남군은 지난해 이어 두번째 공모 선정으로 지역 푸드플랜과 연계한 건강

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공고히 하고 더불어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6일 해남군에 따르면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은 중위소득 50% 이하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채소와 과일, 육류 등 국내산 농·식품을 구입할 수 있는 전자카드 형태의 바우처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4,600여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바우처 금액은 전년과 동일하게 1인 가구 4만원, 2인 가구 5만7,000원, 3인 가구 6만9,000원, 4인 가구는 8만원 등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지원기간은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간이다.

수혜 대상자는 2월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바우처 카드로는 관내 로컬푸드 직매장과 농·축협 하나로마트에서 신선채소, 과일, 현우유, 계란, 육류, 잡곡, 꿀 등을 구매할 수 있다. 아울러, 교통약자 및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 바우처 카드 직접 사용이 어려운 대상자를 위해 각 가정으로 직접 꾸러미를 배송해주는 서비스도 병행한다. 지난해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시행을 통해 관내 4,010가구가 19억 8,200만원의 지원을 받았으며, 거동불편자 및 복지시

설 입소자 등 약 1,000여 가구에 대해서 해남군 로컬푸드 직매장 및 농협 하나로마트와 연계해 매달 1~2회씩 농식품꾸러미를 구성해 가정까지 배달해주는 서비스를 시행해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에 전남 도내 유일 2년 연속 선정돼 먹거리 취약계층에게는 영양 불균형 해소를, 지역 중소농가에는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전망된다”며 “지속적인 먹거리 선순환 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남·박병태 기자



해남군 송지 어란항에서 물김 위판이 한창이다.

/해남군 제공

청정바다 고품질 ‘물김’ 생산 순항

명현관 해남군수 위판장 점검...“시책 개발 지원”

해남군 청정 바다의 물김 생산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16일 해남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부터 생산을 시작한 물김은 지난 10일 기준 생산량은 1만 9,391톤, 생산금액은 228억 5,900만원으로 전년대비 생산량은 4%(723톤), 생산금액은 30%(5.2억 8,700만원) 증가했다. 해남군의 2022년산 김 양식 시설현황은 9,067ha에 19만 2,140척이다. 올해 물김은 김 채묘 초기 온도 24도 안팎에서 한달정도 정제된 수온으로 인해 적황이 좋지 않았지만, 10월 중순

부터 수온이 예년 수준으로 회복됐다. 영양염 수치도 점차 회복돼 11월부터는 생산량이 예년 수준에 도달했다. 또한 김 양식어장 예찰 활동을 통한 지도와 함께 어업인들의 김발 관리가 잘 이루어지면서 생산량 증가와 함께 고품질의 물김이 생산되면서 위판고도 크게 올랐다. 해남군은 올해 역대 최대 사업비인 110억원을 투입해 스티로폼 부표를 대체할 친환경 부표 보급을 실시하는 한편 김 어망 및 김 육상채묘 지원 등 김 양식 관련 11종 사업에 38억원을 지원

해 고품질 김 생산 기반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처음 시행된 친환경 수산물 직불금 10억 2,400만원을 관내 75여가에 지급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명현관 군수는 새해를 맞아 최근 화산 송평 위판장을 시작으로 관내 물김 5개소 위판장을 찾아 물김생산 현황을 점검하고, 어업인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명 군수는 “지속적인 김 산업 시책개발 지원으로 어업인들이 살기 좋은 땅 끝바다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해남·박병태 기자

신안, 시금치·대파 산업 특구 지정 기간 연장

2024년까지...농업인 역량 강화 사업 추진

신안군은 시금치·대파 산업 특구 지정기간이 오는 2024년까지 3년간 연장승인됐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시금치·대파 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상품개발 등을 위해 시설 확충과 연구개발, 농업인의 역량강화 사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신안 지역에서 생산되는 시금치는 잎이 넓고 두꺼운 것이 특징으로 품질과 맛이 좋아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높다. 대파는 전국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최대의 주산지로 모래가 많은 토양에서 해풍을 맞고 자라 흰색 부분인 연백부

가 길고 굵다. 박우량 군수는 “시금치·대파 산업 특구 기간 연장 승인을 통해 농업인 역량강화 사업을 활발히 추진해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두 작물은 농한기 고소득 작물로 유휴 노동력이 많이 활용된다. /신안·이주열 기자

영암, 잔류농약 분석 기술 ‘우수’

영암군은 영국의 식품환경연구원이 운영하는 ‘2021년 국제 분석능력 숙련도 평가’ 프로그램 중 잔류농약 분석기술 능력에 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국제적 인지도와 신뢰도가 높아 매년 세계 각국의 정부 기관과 민

간 분석기관, 연구소 등이 참여해 분석능력을 검증받고 있으며 잔류농약 등 10여개 분야의 분석 능력을 평가한다. 영암군은 이번 평가에서 잔류농약 13개 성분에 대해 모두 표준화점수 0.8 이하의 수치를 받았으며, 특히 총 13개 성분 중 5개 성분은 0.5 이하의 값을 받았다.

표준화점수는 3 이상은 불만족 단계로 평가되며 값이 0에 가까울수록 분석 결과가 우수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올해부터 농산물 안전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국제 공인인증 분석 기술력을 바탕으로 관내 농산물 유통 전 잔류농약 검사를 통해 안전한 먹거리 생산 및 제공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암·최복섭 기자

강진, 문화재 보수사업 탄력

강진군이 올해 문화재청 국비를 확보하면서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강진군에 따르면 군은 총 111억 8,000만 원의 사업비로 전라병영성 등 관내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정비사업 28건과 전통 사찰 보수 정비 7건, 도 지정 문화재 7건 등 총 56건에 대한 보수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올해는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에 반영된 전라 병영성 내부 연회당 및 연지 복원, 월남사 주불전 건립사업 등을 진행한다. 전라병영성 복원사업은 1월 중 문화재청 설계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실시 설계안 기술 검토가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정비 공사를 시작 할 예정이다. /강진·한태선 기자

서해해경청, 고정익 항공기 조종사 역량 강화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 모의비행훈련장치를 개선하고 조종사 매뉴얼을 배포하는 등 고정익 항공기 조종사의 비행 역량을 높이기 위해 교육·훈련체계 강화에 나섰다. 16일 서해해경청 무안고정익항공대에 따르면 모의비행훈련장치인 CN-235 시뮬레이터를 업그레이드했다. 기존 시뮬레이터는 기본적인 기능만 있어 해양경찰 특수임무 수행에 적합한 훈련용으로는 미흡했다. 이에 무안항공대 고정익 조종사 중 IT 전문가인 정필현 경위가 직접 장비를 구입해 현재 운용 중인 항공기 CN-235 조종석과 동일한 환경을 만들었다.

여기에 복잡·다양한 해양재난을 프로그래밍하는 등 해양경찰에 특화된 훈련장비로 고도화시켜 실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장, 부기장 등 조종사를 대상으로 단계별 비행훈련 커리큘럼인 실라버스(강의요강)를 자체 제작·배포했다. 실라버스에는 비행의 처음부터 끝까지 반드시 받아야 하는 교육내용이 담겼다. 특히 단순 비행시간 채우기 교육이 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훈련방법과 필수 비행횟수 등을 명시했다. 아울러 신임 조종사 등 CN-235를 처음 접하는 조종사를 위한 서브 매뉴얼도 제작했다. /목포·김동균 기자

클릭! 고향 속으로



영암 119안전센터, 가정용소화기 전달

영암 119안전센터는 최근 시종면 신흥1리 화수마을에 가정용 소화기 20대를 전달하며 소화기 사용법과 화재 취약 시기인 겨울철에 화재 발생 시 대처요령에 대해 안내했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지난해 12월 주택과 창고가 전소돼 많은 재산피해를 보고 현재 화수마을화원에 임시 거주 중인 A농가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사 또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화재 예방을 강조했다. 박현제 시종면장은 “화재 사고 예방은 작은 관심에서 시작하는 만큼 각 가정에 소화기 비치와 소방 안전 훈련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화수마을 주민들의 화재로 인한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암·최복섭 기자



목포소방서, 지하 주차장 화재진압 훈련

목포소방서는 최근 지하층 화재의 효과적인 재난 현장 대응을 도모하기 위해 목포시 에메랄드 쿨을 찾아 지하 주차장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주차장 특성상 소방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해 육내 소화전, 소화기 등을 활용한 가상 화재진압과 라이트 라인을 활용한 인명구조 훈련을 중점적으로 진행했다. 또, 건물 외부에서는 신속한 연소 확대 방지를 위해 양용기플링을 장착한 소방호스를 통해 연결수관, 연결살수설비를 점령하는 훈련도 함께 병행했다. 박원국 서장은 “앞으로 다양한 화재진압 기법 개발과 훈련을 통해 화재로 인한 피해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김동균 기자



진도, 코로나 확산 방지 캠페인

진도군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최근 계속해서 추가 발생함에 따라 진도읍아리랑사거리 일원에서 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군민들에게 감염속도가 델타변이보다 2~3배 빠른 오미크론 변이의 위험성을 알리고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해 설 명절까지 ‘전 군민 잠시 멈춤’을 호소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잠시 멈춤에 동참합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실시된 캠페인을 통해 ▲가벼운 감기증상이라도 반드시 검사받기 ▲언제 어디서나 KF94 이상 마스크 착용 ▲타지역 방문, 행사·모임 자제 ▲백신 추가 접종 등을 어깨띠, 파켓 등으로 홍보했다. /진도·박병호 기자